

“李 대통령 중소기업 공약 잘 실천할 것”

중기중앙회, 中企 10곳 중 6곳에서 응답… 최우선 추진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46.7% 꼽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3.0%)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잘 실천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중소기업계와

소통 강화’(45.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또한 △국회 및 야당과 소통·협력 강화(21.7%) △국정과제 입안과정에 중소기업계 참여(18.0%) △정부부처 간 킥박이 해소·협업 강화(1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정책공약 중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46.7%) △공정·상생거래 환경 조성(35.0%) △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지원(22.7%) △R&D 확대 및 기술보호 지원(22.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46.0%)을 꼽았으며, △경제성장 견인능력(41.0%)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39.0%)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하고, 804만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전북중기청, ‘AI 콘텐츠 마케팅 SNS 전략 심화과정’ 온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AI 콘텐츠 마케팅 및 글로벌 SNS 전략 심화과정 교육’을 오는 16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전북중기청 등 중소벤처기업부 13개 지방중기청 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하며, 이번 교육은 5월에 개최한 기본과정에 이어 심화과정으로 AI와 SNS 마케팅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은 3시간 동안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되며, 톨 사용법 및 콘텐츠 마케팅의 구조 분석, 생성형 AI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심화과정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 1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300명을 모집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분은 온라인(<https://tinyurl.com/mssj250616>)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기청 누리집(www.mss.go.kr/site/jeonbuk/main.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금액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사회 안전망 확충 위해 7월부터 월2만원 최대12개월 증액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본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과 협약·지원 중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희망장려금을 올7월부터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및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폐업·사망·

노령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중기중앙회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과 협약해 노란우산 신규가입자가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별도로 월 지원액을 최대1년간 추가 적립하고 노란우산 해

지 시 장려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이하 사업장만 해당하며, 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가입·신청해야 한다.

노란우산 가입 및 희망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기자

전북농협, ‘2025 쌀가공식품산업대전’ 참가

일산 킨텍스 전북관내 쌀가공품 홍보

전북농협은 공덕농협과 함께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쌀가공식품산업대전(RICE SHOW 2025)’에 참가해 전북관내 농협

쌀가공식품을 홍보한다.

라이스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쌀가공식품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세계가 주목하



전북농협은 공덕농협과 함께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쌀가공식품산업대전(RICE SHOW 2025)에 참가 전북관내 농협 쌀가공식품을 홍보한다.

는 선물, 한국 쌀 가공식품’을 주제로 국내외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 쌀의 우수성과 다양한 가공식품 트렌드를 소개한다.

전북농협은 지속되는 쌀 소비 감소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가공식품 개발과 홍보에 힘써왔으며, 이번 라이스쇼 참가를 통해 전북 쌀로 만든 떡국떡, 찰쌀떡, 누룽지, 떡볶이, 즉석밥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전북농협은 지난해 K-라이스 페스타 에서 지역본부 경진대회 1위를 수상하는 등 전북 쌀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는 전북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정환 본부장은 “라이스쇼를 통해 전북 쌀가공식품의 우수성과 다양한 상품을 널리 알리고 K-푸드 열풍과 연계한 수출 확대에도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과 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간소화 서비스 확대

농어촌초, “2인 이상 공동명의 청구자도 신청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는 이달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월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

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2일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본인이 아닌 위임자가 대신 신청을 하거나 비균등 분할 환급을 원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이용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란 위임자가 대신 신청, 비균등 분할 신청, 종중·주택조합 등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신청, 파산선고 법인의 신청, 환급 신청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 신청 등이다.

최진백 한국농어촌공사 자금관리처장은 “앞으로도 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환급 신청은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https://ipc.ekr.or.kr>)에서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은,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참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순창군이 선정된 만 18세~49세의 근로청년들이 종자통장에 매 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순창군에서 납입금의 두 배를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정책 사업으로 청년들의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3년부터 전북은행이 단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통장 개설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 594명에 이어 올해는 200명의 청년들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입금액은 월 15만원으로 가입 시 순창군에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2년간 월 15만원씩 적립했을 경우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순창군 지원금액 720만원을 더해 만기 시 총원금 1,080만원과 추가로 전북은행 이자 혜택을 받게 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순창군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